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평가 (제1보)

The Impression Evaluation of the Cloth's Wearer in Relation to Tone Combination and Body Type of Wearer

팽숙경* · 강경자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Suk-Kyung Paeng* · Kyung-Ja Kang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wearers' body types and clothes' neutral tone combin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7-point semantic). The stimulus include 45 pictures manipulated by computer simulation in wears' body types and neutral tone variation. The subjects are 54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Gyeong-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consisted of 5 different dimensions including tenderness, cuteness, attractiveness, elegance, intrepidity. Each impression of neutral tone combinations, along with wears' body typ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enderness, attractiveness, and intrepidity. Especially, it had the strongest effects on attractiveness. Each impression of wearers' body types along with neutral tone combinations affected cutenes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fact above, wears' body types and neutral tone combin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mpression formation of wearers.

Key Words : wears' body types, neutral tone combination, impression evaluation

I. 서론

우리는 흔히 '첫인상이 사람을 좌우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첫인상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며 이러한 첫인상 형성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의복과 외모이다.

의복은 무언의 언어로서 기능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용자의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의 성별, 연령은 물론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나아가서는 성격과 가치관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착용자가 선택한 의복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강혜원(1990)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의복관련 단서들을 의복 유형, 의복 스타일, 색채 등으로 보았는데 특히 색채는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인자, 2001). 대체로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윤경, 강경자, 2003; 류숙희 외, 2000;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은 의복단서들의 조합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연구하였으며 조합된 단서들에 따라 인상효과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색채는 첫인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색상들의 조합인 배색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착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인상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복이 착용되는 인체 즉 체형에 의해서도 착용자의 인상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Burger(1981)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얼굴이 전체 인상의 50%, 체형이 10%를 설명하고 여성의 경우는 체형이 전체 인상의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특히 여성의 경우 체형이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 Corresponding author: Suk-Kyung Paeng

Tel: 011-850-9347, Fax: 055) 753-9030

E-mail: paeng4you@hanmail.net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을 단서로한 선행연구들(김재숙, 김희숙, 1992; 김재숙, 송경자, 200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미숙, 김재숙, 1995)은 대부분 남성이나 아동의 체형과 의복 및 기타 단서들의 인상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체형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서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체형과 의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상의 톤에 의한 배색을 관련시켜 다루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인상형성 시 여성이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최근 의류업체가 색채기획시 색상보다는 톤을 우선으로 함을 고려할 때 여성 착용자의 체형과 톤 배색의 변화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의류 산업체의 실증적인 배색자료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 배색을 다르게 조합함으로써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에 의해 의복착용자의 인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과 인상차원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대할 때,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일컫어 인상형성이라고 한다.(강혜원, 2000). 이러한 인상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관하여 제시되는 각각의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의 대표학자인 Asch(1946)에 의하면 인상형성은 타인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전체적 형태안에 유의미한 형태로 통합된다고 하였고 여기서 여러 정보들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이 지닌 특성 중에는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특성이 있으며 이 중심특성에 따라 주변특성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Osgood(1957)은 대인지각의 주요인자를 평가인자, 역능인자, 활동인자로 분류하고 이 중 평가차원이 가장 설명력 있는 중요차원이라고 하였고, 박혜선(1984)은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으로 평가, 활동, 역능, 유행차원을 도출해 냈으며 이 중 평가차원이 가장 설명력이 크다고 하여 Osgood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Damhorst(1990)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109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복에 대한 인상 차원은 평가차원, 역능차원, 활동성차원, 사고적차원으로 범주화되며 이중 역능성 차원이 가장 중요차원이라고 보고하여 박혜선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은 3-6개로 범주화되며 그 속에는 평가, 활동, 능력, 품위, 독특성, 현시성,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등의 요인들이 포함되며 대체로 가장 기본적이며 설명력이 큰 차원은 평가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강경자, 2003;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홍병숙, 1993)

이상에서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차원들은 사용된 의복단서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단서들을 변수로 한다면 또 다소 다른 차원으로 인상이 형성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단서

1) 의복

의복에 있어 색채는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감각적인 요소로 가시적 표현력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강혜원, 2000).

무채색은 흰색에서부터 검정에 이르는 회색단계로 밝고 어두운 정도 즉 명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느낌을 주고, 회색 톤은 대체로 무겁고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명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밝은 회색 톤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두운 회색 톤은 딱딱한 이미지를 준다. 검정은 모든 색이 혼합된 색으로 과거와는 달리 젊은 신세대들에게 첨단 이미지, 패션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인(2000)과 김미영(2002)의 의복 선호색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흰색에서부터 검정에 이르는 무채색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유형과 무채색 의복의 명도가 의복 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Francois 와 Evans(1987)는 대인지각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차미송(1992)은 의복색은 현시성과 성숙

성 차원에, 의복형태는 활동성과 편안성 차원에 더 영향을 미치며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고 이정옥 등(1995)도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평가성이 높다고 하였다. 류숙희 등(2000)은 4종류의 무채색으로 된 5 종류의 의복형태를 변인으로 하여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의 색채에 의해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 차이를 보여 회색과 검정색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더 매력적이고 품위있는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문주영, 강경자(2003)는 상·하의 색상과 하의 형태에 따른 캐주얼 웨어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결과 외모평가요인에서는 하의 형태가 스커트일 경우는 흰색을, 팬츠일 경우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대담성 요인에서는 상의가 흰색일 경우 팬츠가, 검정일 경우는 스커트일 때 높게 지각되었다.

2) 착용자의 체형

우리가 타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단서는 바로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일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외모의 매력성은 타인의 다른 특질들을 능가하며 나아가 다른 특질들에 대한 추론에 후광효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Pedersen (1994)은 남성의 경우 체형, 눈, 얼굴형, 키, 헤어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체형, 헤어, 얼굴형, 다리, 키 순으로 신체적 매력성 평가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신체 특성 중 체형이 중요한 매력단서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Douty(1984)는 대체로 지각자들은 마른체형의 착용자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김재숙, 김희숙(1992)도 정상체형의 착용자가 비만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호의적인 외모로 평가되고, 비만체형 착용자는 정상체형 착용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미숙, 김재숙(1995)과 김재숙, 송경자(2002)는 아동의 체형에 따라 정상체형이 비만체형보다 더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비만체형은 정상체형보다 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송선옥, 이인자(2001)는 남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에 대한 연구에서 멋스러움, 친근성, 활동성, 강인성의 4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체형은 멋스러움과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의복유형, 스타일, 색상, 톤조합 등의 의복단

서들에 따라 형성되는 인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색은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색들의 조합인 배색에 의해서도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나 남성의 경우 체형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 시 남성이나 아동보다 여성이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변인으로 여성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힌다.
2.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의 모델은 제 4차 한국표준체위예비조사(2003.5)에서 발표한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참고로 하여 진주시 내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후 이들 중 표준체형에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여대생들을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가장 표준 체형에 가까운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키 162cm, 몸무게 52kg).

의복은 여성들이 즐겨 착용하며 상·하 배색이 가능하고 체형이 구별될 수 있는 의복유형들을 선택하여 준거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여성들의 착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세미 정장차림의 가디건·스커트 차림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가디건은 체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당한 피트감이 있는 것으로, 스커트는 무릎아래 길이의 기본형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상은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김영인 외, 2000)을 참고로 가장 무난하게 선호되는 색상인 무채색을 선택한 후 이를 한국표준색표집(1991)의 색상에 준하여 명도에 변화를 준 세 단계 즉 라이트(white; L), 미디움(grey; M), 다크(black; D)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가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톤 \ 색상	색상	무채색
라이트(Light)		N9
미디움(Medium)		N5.5
다크(Dark)		N2

지 톤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여 라이트/라이트(white/white; L/L), 미디움/라이트(grey/white; M/L), 다크/라이트(black/white; D/L), 라이트/미디움(white/grey; L/M), 미디움/미디움(grey/grey; M/M), 다크/미디움(black/grey; D/M), 라이트/다크(white/black; L/D), 미디움/다크(grey/black; M/D), 다크/다크(black/black; D/D)의 9가지 조합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여성 착용자의 체형은 표준체형(키 162cm, 몸무게 52kg)을 기본으로 먼저 키를 변수로 하여 2종류(작은, 큰)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중량감에 따라 2종류(마른, 뚱뚱한)로 분류하여 표준체형(standard body; 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hort & thin; 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hort & fat; 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all & thin; 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all & fat; TF)의 5가지로 분류 선정하였다.

자극물의 제작은 이상에서 선정된 표준체형의 모델에게 의복을 착용시킨 후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사진 자극물을 CAD system에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Adobe photoshop 7.0 program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이용하여 표준체형의 모델을 이상에서 분류된 5가지 체형으로 변형 조작한 후 선정된 9가지 톤조합이 의복의 상·하의에 조합되도록 색상을 변환 조작하였다. 최종적으로 5가지 체형과 9가지 톤 배색이 조합된 총 45개의 실험 자극물(15×21cm)을 완성하여 Hewlett-Packard deskjet 9600을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 때 헤어스타일과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제하였다.

<표 2> 자극물의 조작내용

톤조합 \ 체형	표준체형(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F)
라이트/라이트(L/L)	SBLL	STLL	SFLL	TTLL	TFLL
미디움/라이트(M/L)	SBML	STML	SFML	TTML	TFML
다크/라이트(D/L)	SBDL	STDL	SFDL	TTDL	TFDL
라이트/미디움(L/M)	SBLM	STLM	SFLM	TTLM	TFLM
미디움/미디움(M/M)	SBMM	STMM	SFMM	TTMM	TFMM
다크/미디움(D/M)	SBDM	STDM	SFDM	TTDM	TFDM
라이트/다크(L/D)	SBLD	STLD	SFLD	TTLD	TFBLD
미디움/다크(M/D)	SBMD	STMD	SFMD	TTMD	TFMD
다크/다크(D/D)	SBDD	STDD	SFDD	TTDD	TFDD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체형(5), 톤조합(9)을 독립변인으로 한 2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두 독립변인(5×9)에 의해 조합된 총 45개의 자극물을 23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1-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관찰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편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복 착용자와 인상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 김재숙, 김희숙, 199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등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30개의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0개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요인분석결과 26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을 기준으로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6월 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인상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6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8$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화를 준 45개의 자극물에 대한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6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미분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된 인상차원은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의 5개 요인으로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7, .86, .83, .71, .56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분석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6.7%로 부드러운-딱딱한, 온화한-신경질적인, 배려깊은-독선적인, 따뜻한-차가운 등이 포함된 7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에 대해 16.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산뜻한-칙칙한, 밝아보이는-어두워보이는,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등 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어 귀염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의복의 상·하의 무채색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변

요인 3은 12.2%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보기좋은-보기싫

<표 3>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차원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²)
요인 1. 온유성						
부드러운-딱딱한	.781	.210	.193	-.035	-.058	.697
온화한-신경질적인	.771	.197	-.136	.174	-.018	.682
배려깊은-독선적인	.757	.201	-.072	.063	-.047	.625
따뜻한-차가운	.746	.098	-.061	-.113	.051	.585
유순한-고집스러운	.718	.029	.273	.045	-.184	.627
상냥한-통명스러운	.670	.273	.260	.087	-.047	.601
여유로운-조급한	.659	-.025	-.154	.257	.058	.528
요인 2. 귀염성						
산뜻한-칙칙한	.226	.763	.171	.194	.016	.701
밝아보이는-어두워보이는	.355	.746	.099	.147	.113	.727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120	.724	.127	-.040	-.036	.558
시원스러운-답답한	.102	.711	.268	.189	.155	.648
가벼운-무거운	.025	.706	.327	.179	-.179	.670
귀여운-성숙한	.165	.644	-.083	-.158	-.036	.475
화려한-수수한	.022	.541	.333	-.060	.280	.485
요인 3. 매력성						
보기좋은-보기싫은	.022	.179	.770	.338	-.060	.743
날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	-.240	.249	.688	.378	-.138	.755
매력있는-매력없는	.171	.396	.682	.229	.028	.705
키가커보이는-키가작아보이는	-.019	-.006	.640	.265	.254	.544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140	.379	.625	.020	.236	.609
요인 4. 품위성						
품위있는-품위없는	.121	.110	.189	.761	.016	.642
차분한-들뜬	.109	-.218	.129	.646	-.120	.509
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219	.208	.257	.643	.067	.575
부티나는-빈티나는	.167	.277	.161	.570	.321	.558
이성적인-감성적인	-.336	.008	.217	.532	.150	.465
요인 5. 대담성						
강한-약한	-.223	-.188	-.044	.155	.743	.663
대담한-소심한	.021	.320	.249	-.026	.668	.611
교유치	4.336	4.297	3.168	2.705	1.484	15.990
전체 변량의 %	16.677	16.525	12.185	10.405	5.706	61.498
공통 변량의 %	27.117	26.873	19.812	16.917	9.281	100.00

은, 날씬해 보이는-뚱뚱해보이는, 매력있는-매력없는, 키가 커보이는-키가 작아보이는 등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날씬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등의 형용사쌍이 이 요인에 포함된 것은 큰 키와 날씬한 체형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매력성에 대한 시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4는 품위있는-품위없는, 차분한-들뜬, 조화로운-조화롭지 못한 등의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에 대해 5.7%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강한-약한, 대담한-소심한 등 2 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대담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온유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고, 따뜻하고, 상냥한 것으로, 귀염성 요인에서는 산뜻하고, 밝아보이고, 어려보이고, 귀여워보이는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매력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날씬해보이고, 매력있으며 키가 커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품위있으며 차분하고, 조화로운 것으로, 대담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1.5%이며 이 중 온유성과 귀염성 요인이 공통변량의 54%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착용자의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을 단서로 하여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차이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 착용자의 체형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

<표 4>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F값	F값	F값	F값	F값
주요 효과	톤조합 (A)	6.458**	15.708**	1.475	1.030	4.825**
	체형 (B)	10.332**	10.248**	78.704**	6.836**	19.107**
상호 작용 효과	A×B	1.303	1.036	.974	1.010	.768

*p<.05 **p<.01

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효과는 변인이 무채색 톤조합인 경우 온유성, 귀염성, 대담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귀염성 차원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변인이 체형일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매력성 차원에서는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

의복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착용자가 표준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표 5>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 귀염성,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그 외 톤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표준체형의 착

<표 5> 착용자가 표준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	F
온유성	-.21	.14	.20	.79	.12	.17	.71	-.29	-.88	3.80**
Duncan	bc	ab	ab	a	ab	ab	a	bc	c	
귀염성	1.06	.23	.35	.40	-.45	-.32	.39	-.62	-.88	5.30**
Duncan	a	ab	ab	ab	bc	bc	ab	c	c	
매력성	-.32	.42	.34	.68	.10	-.02	.60	.22	.13	1.73
품위성	-.04	.11	-.12	-.09	.00	-.36	.57	.42	.46	1.37
대담성	-.49	-.09	-.33	-.76	-.42	.08	-.51	-.71	.28	2.04*
Duncan	abc	abc	abc	c	abc	ab	bc	c	a	

*p<.05 **p<.01

용자는 다크/다크로 톤이 조합된 경우 가장 딱딱하고 신 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로 지각된데 반해 라이트/미 디움이나 라이트/다크의 조합은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며 배려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미디 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 등 명 도가 낮은 어두운 톤으로 조합된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되어 칙칙하고 성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명도가 아주 높은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은 매우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어 조합된 톤의 명도 변화에 따라 귀염성 이미지는 차이를 나타내 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다크/미디움, 다크/다크를 제외 한 나머지 톤조합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다크의 조합에서 강하게 나타나 매우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를 주었다. 여기서 미디움/다크와 다크/미디움은 동일한 톤 조합이나 상·하의의 조합이 바뀔때 따라 대담성 이미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착용자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표 6>에서 비교해 보면 귀염성 차원에서 만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그 외 나 머지 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명도가 높은 라 이트/라이트의 조합은 가장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명도가 아주 낮은 다크/다크의 조합은 가장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톤 조합이 주는 귀염성 인상은 표준체형에서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유의차는 나지 않았지만 매력성과 대담성 차

원을 보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모든 톤조합 에서 매력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담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무채색 톤 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있 으나 동시에 소심하고 약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 었다. 이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경우 톤조합보다 체형 이 매력성과 대담성 인상차원에 보다 중요한 단서로 작 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착용자의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표 7>에서 비교해보면 귀염성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미디움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그 외 나머지 톤조 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명도가 높은 라이트/라이트로 조합된 경우 가장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이미지로, 반면에 명도가 낮 은 다크/다크나 미디움/다크로 조합된 경우 매우 칙칙하 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표준체형 이나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그러나 다크/라이트, 미디움/미디움, 라이트/다크의 조합은 표준체형과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경우는 긍정적 으로,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차이 를 보였다.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매력성과 품 위성 차원을 보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모 든 톤조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 나 톤 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없고, 품위없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온유성 차원에서는 다크/다크 를 제외한 모든 톤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표 6> 착용자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라 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34	.09	-.42	.42	-.22	-.76	-.24	-.48	-.06	1.45
귀염성	1.10	.73	.52	.43	-.01	-.14	.74	-.31	-.51	3.67**
Duncan	a	ab	abc	abc	bcd	bcd	ab	cd	d	
매력성	.09	.33	.50	.05	.05	.28	.03	.01	.29	.68
품위성	.11	-.18	-.03	.68	-.10	.03	-.06	.01	.30	.90
대담성	-.26	-.80	-.73	-1.41	-.68	-.42	-.48	-.57	-.42	1.77

*p<.05 **p<.01

<표 7> 착용자가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51	.01	.22	1.22	.49	.36	1.01	.34	-.06	1.97
귀염성	.58	.04	-.11	.00	-.39	-.49	-.06	-.70	-.71	3.46**
Duncan	a	ab	abc	abc	bc	bc	abc	c	c	
매력성	-1.02	-.87	-.67	-.85	-.85	-.58	-1.03	-.98	-.77	.48
품위성	-.07	-.73	-.60	-.29	-.31	-.08	-.19	-.51	-.14	.61
대담성	-.35	-.23	-.03	-.51	-.37	.25	-.31	-.29	.19	.96

*p<.05 **p<.01

부드럽고 배려깊으며 온화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의 경우 톤 조합 보다 체형이 매력성과 품위성, 온유성 인상차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함을 나타내며, 이 때 온유성 차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매력성과 품위성 차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표 8>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과 귀염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다크/라이트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그 외 나머지 조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명도가 낮은 동일 톤조합인 다크/다크나 미디움/미디움의 조합에서 강하게 나타나 매우 딱딱하고 독선적이며 신경질적인 인상을 주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미디움/라이트,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로 톤이 조합된 경우 부정적으로, 그 외 나머지 톤조합 특히 라이트/라이트 일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매력성 차원을 보면 모든 톤조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톤 조합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착용자가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표 9>에서 살펴보면 귀염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다크의 조합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산뜻하고 어려보

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나머지 톤 조합 특히 다크/다크와 다크/미디움의 조합은 매우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고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온유성 차원에서는 다크/다크의 조합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딱딱하고 신경질적인 이미지를 주었고 그 외 톤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이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미디움/미디움의 조합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를 주며 그 외 톤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었다. 여기서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은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에게는 대담성 인상차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나머지 체형의 착용자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어 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미디움/라이트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톤조합에서 품위없는 것으로, 매력성 차원에서는 모든 톤조합에서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매력성과 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톤 조합보다는 착용자의 체형 특히 중량감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인 착용자의 인상차원에는 무채색의 톤 조합 보다는 체형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고 특히 매력성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인상형성 시 5가지 체형 중 표준 체형이나

<표 8> 착용자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06	.46	-.09	.44	-.67	-.46	.37	-.56	-.94	4.61**
Duncan	ab	a	ab	a	bc	bc	a	bc	c	
귀염성	1.05	-.50	.36	.79	.00	-.07	.63	-.31	-.19	3.96**
Duncan	a	d	abcd	ab	bcd	cd	abc	d	cd	
매력성	.78	1.00	.99	.50	.34	1.07	1.02	.81	.22	1.80
품위성	.20	.59	.59	.57	-.22	-.17	.06	-.03	.28	1.52
대담성	-.26	-.28	-.02	-.49	-.36	.28	-.09	.02	.60	1.95

*p<.05 **p<.01

<표 9> 착용자가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인 경우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인상 차이

톤조합 요인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다크/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다크/ 미디움	라이트/ 다크	미디움/ 다크	다크/ 다크	F
온유성	.89	.41	.38	.19	.44	.01	.57	.38	-.13	1.02
귀염성	-.19	-.09	-.50	-.17	-.40	-.89	.30	-.51	-.93	3.00**
Duncan	abc	ab	bcd	ab	bcd	cd	a	bcd	d	
매력성	-.70	-.81	-.47	-.99	-.73	-.55	-.98	-.61	-.68	.55
품위성	-.53	-.84	-.11	-.27	-.43	-.17	-.34	.16	-.18	.84
대담성	1.00	.36	.57	.17	-.38	.63	.24	.59	.54	1.57

*p<.05 **p<.01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가 무채색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키가 작고 마른 체형과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톤조합의 영향도 받으나 이보다는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염성 인상차원에서는 모든 체형에서 톤조합 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체형 별로 톤조합에 따라 귀염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2)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체형 별 인상 차이

무채색의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체형 별 인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톤 조합이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긍정적으로, 표준체형과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뚱뚱한 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부드럽고 은화하고 배려깊은 것으로, 키가 작고 마른 체형과 표준 체형의 착용자는 딱딱하고 신경

질적이며 독선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을 제외한 나머지 체형의 착용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산뜻하고 밝아보이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여기에는 산뜻하고 밝아보이는 흰색 고유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톤조합 보다는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라이트/라이트 즉 밝고 환한 흰색들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은 긍정적으로,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경우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톤 조합이 라이트/라이트인 경우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톤 조합이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1>에서 비교해보면 온유성을 제외한 모

<표 10>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21	-.34	.51	.06	.89	3.61*
Duncan	bc	c	ab	bc	a	
귀염성	1.06	1.10	.58	1.05	-.19	7.01**
Duncan	a	a	a	a	b	
매력성	-.32	.09	-1.02	.78	-.70	11.24**
Duncan	bc	b	d	a	cd	
품위성	-.04	.11	-.07	.20	-.53	.86
대담성	-.49	-.26	-.35	-.26	1.00	
Duncan	b	b	b	b	a	4.56**

*p<.05 **p<.01

<표 11>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14	.09	.01	.46	.41	.47
귀염성	.23	.73	.04	-.50	-.09	
Duncan	ab	a	ab	b	b	3.31*
매력성	.42	.33	-.87	1.00	-.81	
Duncan	a	a	b	a	b	12.61**
품위성	.11	-.18	-.73	.59	-.84	
Duncan	a	ab	b	a	b	5.46**
대담성	-.09	-.80	-.23	-.28	.36	
Duncan						2.41

*p<.05 **p<.01

든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귀염성차원에서 표준체형과 키가 작은 체형은 긍정적으로, 키가 큰 체형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중량감 보다는 키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즉 미디움/라이트로 톤이 조합된 경우 표준체형과 키가 작은 체형의 착용자는 산뜻하고 어려보이고 특히 키가 작고 마른체형이 가장 귀여운 이미지를 주었으나 키가 큰 체형은 직척하고 나이들어 보이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라이트/라이트의 톤 조합에서와 상반된 결과로 동일한 체형이라도 톤 조합에 따라 귀염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매력성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표준체형과 마른체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키와 상관없이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된데 반해 마른 체형과 표준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의 착용자는 긍정적으로, 키가 작고 마른체형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뚱뚱한 체형에서 강하게 나타나 라이트/라이트의 톤 조합에서와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대담성차원에서도 라

이트/라이트의 조합에서와 공통된 반응을 보여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대담하고 강한 인상을 주었다.

톤조합이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2>에서 비교해 보면 매력성과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표준체형과 마른체형의 착용자는 매력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의 톤 조합에서와 유사한 반응으로 매력성 인상차원에서는 키보다는 중량감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의 착용자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마른체형의 경우 강하게 나타나 매우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3>에서 비교해 보면 매력성과 품위성,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부정적으로, 표준체형과 마른체형의 착용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동일한 톤 조합이나 상·하의의 조합이 바뀐 미디움/라이트와 공통

<표 12>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라이트(검정/흰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요인 \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은유성	.20	-.42	.22	-.09	.38	1.43
귀염성	.35	.52	-.11	.36	-.50	2.40
매력성	.34	.50	-.67	.99	-.47	7.63**
Duncan	a	a	b	a	b	
품위성	-.12	-.03	-.60	.59	-1.1	2.13
대담성	-3.3	-.73	-.03	-.02	.57	3.19*
Duncan	b	b	ab	ab	a	

*p<.05 **p<.01

<표 13>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요인 \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은유성	.79	.42	1.22	.44	.19	2.26
귀염성	.40	.43	.00	.79	-.17	1.55
매력성	.68	.05	-.85	.50	-.99	10.50**
Duncan	a	a	b	a	b	
품위성	-.09	.68	-.29	.57	-.27	4.01**
Duncan	bc	a	c	ab	c	
대담성	-.76	-1.41	-.51	-.49	.17	6.08*
Duncan	bc	c	ab	ab	a	

*p<.05 **p<.01

된 반응이나 미디움/라이트의 조합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가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라이트/미디움의 조합에서는 표준체형의 착용자가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은 긍정적으로,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여기서 마른체형의 경우 동일한 톤조합이나 상·하의의 조합이 바뀐 미디움/라이트와 비교해 보면 라이트/미디움의 조합에서는 마른체형의 착용자가 키와 상관없이 품위있고 특히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 가장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미디움/라이트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품위있으나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표준체형의 경우도 라이트/미디움의 조합은 품위없다고 지각되었으나 미디움/라이트의 조합은 품위있다고 지각되어 동일한 톤 조합이지만 배색된 색상이 상의와 하의 중 어느 곳에 조합되는냐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만이 강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외 체형의 착용자는 소심하고 약한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특히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4>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표준체형은 긍정적으로, 반면 마른체형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는데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서 강하게 나타나 매우 딱딱하고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키와 상관없이 매력있는 것으로, 표준 체형과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경우 매우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조합이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5>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은 긍정적으로, 마른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딱딱하고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체형의 경우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표 14>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 미디움(회색/회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12	-.22	.49	-.67	.44	2.95*
Duncan	ab	ab	a	b	a	
귀염성	-.45	-.01	-.39	.00	-.40	.81
매력성	.10	.05	-.85	.34	-.73	7.11**
Duncan	a	a	b	a	b	
품위성	.00	-.10	-.31	-.22	-.43	.32
대담성	-.42	-.68	-.37	-.36	-.38	.32

*p<.05 **p<.01

<표 15>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 미디움(검정/회색)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17	-.76	.36	-.46	.01	2.59*
Duncan	a	b	a	ab	ab	
귀염성	-.32	-.14	-.49	-.07	-.89	1.82
매력성	-.02	.28	-.58	1.07	-.55	7.27**
Duncan	bc	b	c	a	c	
품위성	-.36	.03	-.08	-.17	-.17	.26
대담성	.08	-.42	.25	.28	.63	2.14

*p<.05 **p<.01

로 지각되어 대부분의 톤조합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매력성 인상차원에서는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보다는 착용자 체형 특히 중량감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톤조합이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6>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딱딱하고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여기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경우 동일한 톤 조합이나 상·하의 조합이 바뀐 다크/라이트와 비교해 보면 라이트/다크의 조합은 부드럽고 배려깊고 온화한 인상을 주었지만 다크/라이트는 딱딱하고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인상을 주어 라이트와 다크로 톤이 조합되는 경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는 얼굴과 가까운 곳 즉 상의에 밝은 흰색을 조합하는 것이 온유성 이미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톤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키보다 중량감이 매력성 인상차원에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톤조합이 미디움/다크(회색/검정)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7>에서 비교해 보면 매력성과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과 표준체형은 긍정적으로, 뚱뚱한 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나 매우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여기서 표준체형의 경우 동일한 톤 조합이나 상·하의 조합이 바뀐 다크/미디움과 비교해보면 미디움/다크의 조합에서는 매력없는 것으로, 다크/미디움에서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동일한 톤조합이라도 상의와 하의 중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중량감에 상관없이 키가 큰 체형은 긍정적으로, 키가 작은 체형과 표준체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큰 체형, 특히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우 대담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키가 작은 체형과 표준체형의 착용자는 소심하고 약한 인상을 주며 특히 표준체형의 경우 매우 소심하고 약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조합이 다크/다크(검정/검정)인 경우 체형 별 인상차이를 <표 18>에서 비교해 보면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모

<표 16> 무채색 톤조합이 라이트/다크(흰색/검정)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71	-.24	1.01	.37	.57	2.85*
Duncan	a	b	a	ab	ab	
귀염성	.39	.74	-.06	.63	.30	1.32
매력성	.60	.03	-1.03	1.02	-.98	14.31**
Duncan	ab	b	c	a	c	
품위성	.57	-.06	-.19	.06	-.34	1.50
대담성	-.51	-.48	-.31	-.09	.24	1.37

*p<.05 **p<.01

<표 17> 무채색 톤조합이 미디움/다크(회색/검정)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체형 요인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29	-.48	.34	-.56	.38	2.11
귀염성	-.62	-.31	-.70	-.31	-.51	.48
매력성	.22	.01	-.98	.81	-.61	9.45**
Duncan	ab	bc	d	a	cd	
품위성	.42	.01	-.51	-.03	.16	1.21
대담성	-.71	-.57	-.29	.02	.59	5.39**
Duncan	c	bc	bc	ab	a	

*p<.05 **p<.01

<표 18> 무채색 톤조합이 다크/다크(검정/검정)인 경우 체형에 따른 인상 차이

요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F
온유성		-.88	-.06	-.06	-.94	-.13	3.37*
Duncan		b	a	a	b	a	
귀염성		-.88	-.51	-.71	-.19	-.93	1.63
매력성		.13	.29	-.77	.22	-.68	6.18**
Duncan		a	a	b	a	b	
품위성		.46	.30	-.14	.28	-.18	1.22
대담성		.28	-.42	.19	.60	.54	2.00

*p<.05 **p<.01

든 체형의 착용자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키가 크고 마른 체형과 표준체형의 착용자가 매우 딱딱하고 신경질적이며 독선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키와 상관없이 마른 체형과 표준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중량감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인상형성 시 무채색 톤조합들 중 명도가 높은 톤 즉 밝은 톤으로 조합될수록 여러 인상차원에서 체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밝은 톤으로 조합될수록 체형 간에 인상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력성 차원의 경우 모든 톤 조합에서 체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는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체형의 분류 요소 중 중량감이 매력성 인상차원에 부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여 모든 톤조합에서 뚱뚱한 체형은 매력없는 것으로, 반면에 마른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6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온유성 요인, 귀염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대담성 요인 등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2.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 별

인상차이를 보면

온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톤조합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과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톤조합보다는 체형 특히 중량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뚱뚱한 체형은 대부분의 톤 조합에서 온유한 인상을,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딱딱하고 독선적인 인상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체형에서 다크/다크의 조합은 딱딱하고 신경질 적이며 독선적인 인상을, 라이트/미디움과 미디움/라이트는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 차원에서는 5가지 체형 모두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받기는 하나 라이트/다크를 제외한 모든 톤조합에서 부정적인 귀염성 이미지를 주어 체형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체형에서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등의 명도가 높은 톤의 조합은 산뜻하고 어려 보이며 귀여운 것으로, 반면 다크/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미디움 등의 명도가 낮은 톤의 조합은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며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이는 중간 명도로 톤이 조합된 경우는 체형에 따라 귀염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나타낸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모든 체형이 톤조합의 유의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상관없이 뚱뚱한 체형은 모든 톤조합에서 매력없는 것으로, 마른 체형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매력성 인상차원에서는 체형 특히 키보다는 중량감이 지배적인 부정적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표준 체형은 중간적인 중량감을 갖기 때문에 톤 조합에 따라 다소 매력성 인상에 차이를 보여 라이트/라이트, 다크/미디움의 조합은 매력없는 것으로 그 외 톤조합은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모든 체형이 톤조합의 유의적인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표준 체형이나 마른체형은 톤조합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톤 조합에 상관없이 품위없는 것으로,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미디움/다크만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뚱뚱한 체형은 톤조합보다 체형 즉 중량감이 품위성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성 차원에서는 표준체형만이 톤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크/다크의 조합이 가장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로, 반면 라이트/미디움은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 외의 체형은 톤 조합보다는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키가 크고 뚱뚱할수록 긍정적인 대담성 이미지로 지각되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모든 톤 조합에서 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과 키가 크고 마른체형은 톤 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며,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모든 톤 조합에서 강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5가지 체형 모두 다크/다크의 조합은 대체로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로, 라이트/미디움의 조합은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다음으로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체형별 인상차이를 보면

라이트/라이트의 조합은 품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 차원에서 체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미디움/라이트는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차원에, 라이트/미디움은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차원에서 그리고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다크/다크는 온유성과 매력성 차원에서, 다크/라이트, 미디움/다크는 매력성과 대담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명도가 높은 톤 즉 밝은 톤으로 조합되었을 때 체형간에 인상 차이가 크며 매력성 차원의 경우 모든 톤 조합에서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력성 차원에서는 톤조합보다는 체형 특히 중량감이 부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의복의 무채색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은 여성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특히 착용자의 체형은 각 인상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매력성 평가 시에 착용자의 의복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이 보다 의복 착용자의 체형이 근본적으로 매력성 인상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인상차원에서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 보다는 중량감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자가 의복 착용자를 접했을 때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 보다는 중량감 즉 무게감이 먼저 시선을 끄는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복 착용자는 먼저 자신의 체형을 고려한 후 무채색 상하 배색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착용자가 추구하는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고 다양한 의복 단서들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의복을 착용한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인체 모델의 얼굴 표정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 착용자의 체형별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채색의 톤조합 뿐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색상과 의복유형, 지각자 연령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착용자의 체형, 무채색 톤조합, 인상평가

참 고 문 헌

- 강혜원(2000).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김미영(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2000).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윤경, 강경자(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재숙, 김희숙(1992).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371-377.
- 김재숙, 송경자(2002).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29-37.
- 류숙희, 최재관, 박종희(2000). 의복색채에 의한 시각적 평가.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5.
- 문주영, 강경자(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111-122.
- 박혜선, 이은영(1984).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의 구성요인 도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9, 103-107.
- 송선옥, 이인자(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이미숙, 김재숙(1995).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제1보)-초등 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1017-1026.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2001). 의상심리. 교문사.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조궁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착용자의 인상에

- 미치는 영향 -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표준색표집(1991).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홍병숙, 정미경(1993). 여성수트의 이미지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Burger, H. I. (1981). Dimens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How Others Se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Douty, H. I.(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5(3), 197-202.
- Francois, S. K., & Evans, P. K. (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64(2), 383-390.
- Osgood, Charles E, Suci, George J, Tannenbaum, Percy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Chicago: Uniaersity of Illinois Press.
- Pedersen & Markee. (1994). Gender Differences in Chracteristics Reported to be Important features of Phys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9, 1539-1544.

(2004. 10. 29 접수; 2004. 12. 01 채택)